

##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음악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음악 분야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25년 1월 15일(수) 14:00~16:30  
(2차) 2025년 2월 4일(화) 15:00~19: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혜영, 신호경, 이미배, 임기현, 조사방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활동과 예술가 간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창작 및 국내 작품 발표에 대해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년도까지 39세 이하였던 신청자격 기준이 2025년부터 34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단위 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예술가'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취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음악 분야는 총 347건 지원신청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행정결격을 제외한 340건을 대상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음원 및 실연 영상, 악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을 평가하였으며, 열띤 논의를 거쳐 2차 심의대상 5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청건수가 많은 만큼 사업 유형 또한 작곡, 기악, 성악, 전자음악, 대중음악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음악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장르가 다원화된 경향이 있었지만 심의위원회는 장르 구분 없이 해당 프로젝트가 보이는 예술성과 독창성을 우선적으로 살피고자 했습니다.

55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심의에서는 사업 내용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작품 기대성(50%)'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50%)'을 평가하였습니다.

본인이 가진 예술적 역량과 고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참신함이 돋보이는 사업이 공통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 내용과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음악적 결과물 또는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이 모였습니다. 팀 유형 신청사업의 경우, 개별 참여자의 물리적 결합보다는 협업을 통해 팀으로서 화학적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이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레퍼토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분명한 기획의도가 나타나지 않아 타 사업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사업, 기획의도는 참신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개념 및 주제적 탐구에 그친 사업은 비교적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한 음악적 결과물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실현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의 '도약'을 위한 본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자의 주도적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주요한 평가 요소로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총 30건 사업(개인 19건, 팀 11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근거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준에 맞게 지원금액을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30건 사업에 대해 527백만원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지원신청서에 제안하신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도 이번 과정이 음악가로서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